법정스님 '새들이 떠나간 숲은…' 감성 언어로 빚은 생명사상

법륜스님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인간고통 해결 철학적 모색

정승석 교수 '인간을 생각하는…' 사랑·번뇌·업등 주제별 탐구

마음가꾸는 수상집 3권 '눈길'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수준높은 불교 에세이집 3권이 동시에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운동모임 회주)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샘터 刊)와 법륜스님(불교환경교육원장)의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모색 간), 정승석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대원정사 간)가 그것. 모두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다.

〈서있는 사람들〉〈무소유〉 등 침묵의 지혜를 잔잔한 감성의 언어로 빚어내는 스테디셀러 작가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아 온 법정스님의 이번 에세이집은 강원도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 5년전, 〈버리고 떠나기〉 이후의 수행의 길을 청량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또 스님 특유의 산방한담(山房閑談)과 자연 중심의 생명사상을 맑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면서 맑은 심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을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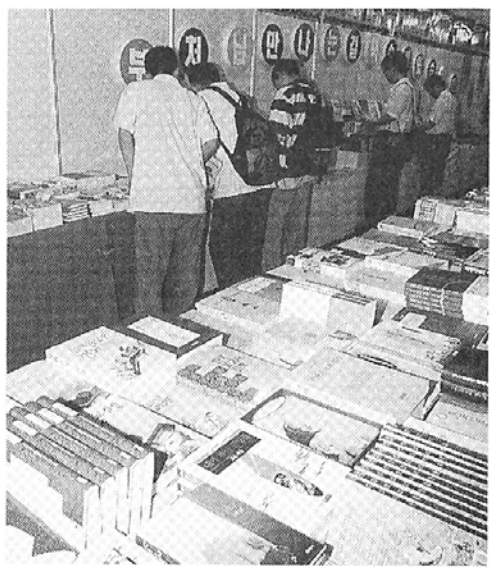


〈그냥 살래…〉는 20여년동안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온 법륜스님의 수상집이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의 이사장이기도한 스님이 국제사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불교적인 관점과 사회과학적 안목으로 접목, 간절한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생구제는 마음만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구조의 변혁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기에,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법륜스님은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서원하면서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 成佛道: 나와 남이 다함께 부처를 이룰 지이다)'를 발원한다.

정승석교수의 〈인간을…〉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그 실상을 지나치기 쉬운 '사랑 번뇌 업 고통 마음' 등 다섯가지 주제를 철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필치로 다루고 있다. 정교수는 이 다섯가지 주제가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파악한다. 그는 "마음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곧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해로 자기의 삶을 반성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출간과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세권의 불서는 불교 에세이물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양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불교 에세이집은 130여종에 이른다.

김재경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세계로 가는 길, 책 속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IPA(국제출판협회) 공인 국제 북페어로 격상된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8~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주최로 열렸다. 20개국 1천5백여 출판사가 30여만권의 책을 출품한 이번 도서전에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스님)는 25평의 부스에 단체관을 설치, 7백여종의 불서를 전시 판매했다.

화제의 외책

인간론 · 심리학 — 사이구사 지음



창조자나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는 불교는 그 출발점부터 인간학이었다. 또한 불교는 인간 내면의 마음을 끝까지 파고들어 독자적인 심리학을 수립했다.

사이구사 미쓰요시 교수(筑波大)의 〈인간론·심리학〉은 불교의 인간학과 심리학을 다룬 책이다. 역자는 김진무씨(동국대 선학과 석사과정 수료). 불교시대사의 불교학 세미나 제3권으로 번역 출간됐다.

'인간론'에서는 그리스철학, 기독교, 유교와의 비교를 통해 인도불교의 인간론을 살펴보고, 중국불교와 정토교, 선의 인간론을 고찰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원시불교와 아비달마 대승불교의 심식론을 다룬 후, 붓다의 성도(成道)를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입각해 분석하고 좌선을 실증적 심리학으로 조명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1만원〉

자타카 1, 2 — 서희건 엮음



서희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이 엮은 〈자타카〉(1, 2권)는 석가모니가 부처로 태어나기 전 보살로서 구도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우화나 동화의 형태로 쉽게 풀어쓴 책이다.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청학 같은 날짐승과 도마뱀 같은 길짐승으로 금수생활도 했다. 물고기에서부터 소 말 개 같은 가축이나 장사꾼, 심지어는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기 이전 보살로 살았던 이야기가 자타카(Jataka)이다. 〈자타카〉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 공덕을 쌓는 고뇌와 고통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문학수첩 각권 6천원〉

인도불교의 인간론 · 선심리학 등 조명 — 화제의 외책 — 우화·동화 형식의 부처님 전생이야기

새로나온 책…

▲나비의 꿈(윤정모 저)=지난해 독일에서 숨진 불자 음악가 윤이상씨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병석에 누워있던 윤이상씨가 유년기부터 숨지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윤이상의 예술적 신념이었다는 게 작가의 해석. 〈한길사 각권 5천원〉

▲문화유산 명찰(한국문원편집부 엮음)=학술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명찰 순례의 형식을 빌어 문화유산인 50여 명찰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설명해 불교 이해의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문원 1만5천원〉

▲속벽암록(신동춘 저)=영문학자이자 시인인 신동춘교수(이화여대)가 선종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벽암록〉을 천착하며 지은 100수의 4행시 모음집. 〈벽암록〉을 통해 사사무애를 체득하는 길을 모색해 온 신교수는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를 치열한 구도정신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한누리미디어 4천원〉

▲새불교 원초불교(릴리 드 실바 外 저)=발심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재가불자들을 위해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교리를 설명한 불교입문서. 저자는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생활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스리랑카의 릴리 드 실바, 호주의 레오나르드 A. 불랜, 네델란드의 니나 반 고르콤 등 불교학자. 〈고요한소리 6천원〉

▲명상으로 떠나는 시공여행(이여명 저)=시간에 얽매이고 공간만을 바꾸는 늘 공허함이 뒤따르는 그런 여행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행, 그것은 나에게로 향하는 여행이다. 저자는 참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명상의 방법으로 희생적 생활, 감사하는 생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 내면을 탐구하는 생활, 진리를 사모하는 생활, 온전히 맡기는 생활 등을 강조한다. 〈정신문화사 5천원〉

▲생활속의 진언(정의행 엮음)=이 진언집은 '진언을 왜 외워야 하는지, 진언을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 탐진치를 없애고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진언들을 다양하게 모아 정리했다. 〈이바지 2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4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 원 한	우 리
7	윤회의 법칙	김 성 규	큰 산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9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10	선의 정신의학	김 종 해	한 강 수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한국의 불교미술'

요사이 우리 것을 찾자는 유적지 탐방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떠나고 보면 늘 만나는 것이 유명한 사찰이나 폐사지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들어와 이미 1700년여전의 기나긴 역사속에서 우리문화속에 용해되어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남아있는 문화재의 태반이 불교의 예술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요 좋은 명산 뿐만 아니라 풍치 좋은 자그마한 야산의 언저리에도 여지없이 절이 들어서 있다.

이와같이 불교는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스쳐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즉 수학여행을 떠나는 많은 학생들도 신라의 고도인 경주의 불국사(佛國寺)나 감은사(感恩寺), 석굴암(石窟庵)을 들렀을 때 그것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고 돌아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언이 이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동국대학의 홍윤식 교수가 저술한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刊)이란 저서를 추천한다. 홍교수는 불교의 사상과 불교미술을 연구한 학자로 특히 불화연구에는 일가를 이루고 있다.

이책의 짜임새는 먼저 불교와 불교미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람(伽藍)의 형성과정과 배치를 말하였는데, 특히 불교의 전래시기인 삼국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람배치는 달라서 고구려는 1탑3금당식, 백제는 1탑1금당식을 이루며 신라는 일탑1금당식이었는데 통일후 쌍탑1금당식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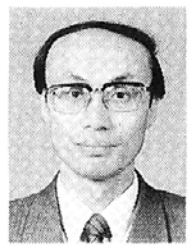
또한 절의 중심에 위치한 탑(塔)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석등, 부도 등의 구조와 기능을 더불어 전해주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조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상의 출현 및 전래과정과 불상의 종류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따라 변천해가는 불상양식의 구분법을 소개하고 있어 어느 곳을 가서도 개략적인 불상의 감별을 논할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불화(佛畵)의 기원과 구조, 범종(梵鍾)의 특징 및 변천과정과 불교공예품들인 사리용구, 공양구, 의식용 집구, 사물, 가사, 번과 당 등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 불교미술의 전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불타버린 전남 화순의 쌍봉사 대웅전인 3층목조탑에 애석함을 금치 못하면서 문화재 관리 중에서도 특히 불교문화재를 불심을 가지고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탱화의 종류와 신앙적 형태를 알아보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목조건축물, 탑, 부도, 석등, 범종, 불상과 수인(手印)의 종류를 그림으로 그려 각부분의 명칭을 예시하고 있어 실물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폐사지만을 답사, 조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책을 길잡이로 권하고 싶다.



오 순 제
〈한국고대사연구소장〉

시대별 불상·탑양식 상술
불교 문화재 답사 길잡이

현장스님외 염불선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玄藏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九山禪師를 은사로
득도하여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보성 대원사에
수련도량을 개설
일반인과 재가불자를
위한 주말수련회를
지도하고 있다.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가장 순수한 참선 입니다.」
〈청화큰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 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 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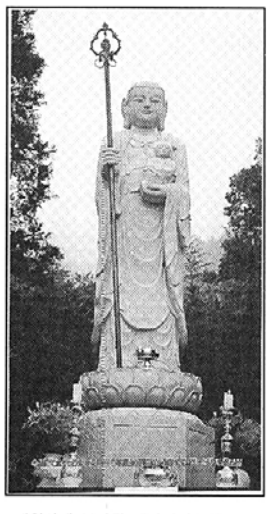
〈저자 서문 중에서〉

◀현장스님 지음 ◀민족사 퍼냄 (02)732-2403 ◀값 5500원

태아령 (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넋들을 위하여



대원사에 봉안된 태안지장보살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 부터 벗어나며
세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공양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정토수행법』
③ 백일기도 자료집 『부처님께 가는 길』
④ 사경과 사물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기도용 『태안지장보살사진』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입재)~8월 28일 (회향)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연 락 처 : 우)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화 : (0694) 52-1755, 53-1755
· 팩스 :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